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Household's Debt and its Determinant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 淑 才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 純 美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강사 梁 廷 瑄

Consumer Studi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Consumer Science & Family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
Professor : Soon-Mi, Kim
Home Economics, Chung-ang Univ.
Lecturer : Jung-Sun, Yang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ven if holding debt may be a rational means for household to maximize utility under any circumstance and any time through the family life cycle, most households have some difficulty to determin and keep the moderate debt amou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debt and the factor associated with debt. Data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4,009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mong 4,009 households, 1,400 housholds(34.9%) owed.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of household header, liquid and real asset, and housing ownership had significant effects on whether household having debt. The real and liquid

asset ha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with the liabilities of financial agency, whereas the occupation of household header, liquid asset, and unearned income with private liabilities. Finally,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of household header, home ownership, and liquid asset ha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amount of debt, while earned and unearned income, and real asset had positive one.

Ⅰ. 문 제 제 기

가계의 경제적 행동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매우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가 없는 가계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부채가 있는 가계는 현재의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현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대신 새로운 자산을 축적하기도 한다. 가계가 특정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부채를 보유하고, 이러한 부채보유가 바로 특정 유형의 자산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의존성을 암시하는 것이다(Bryant, 1986).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 중에는 자신의 지불능력을 넘는 극박한 상황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외의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자성 부채를 보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부채상황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부채를 보유하는 것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큼의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부채는 이처럼 자산증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부채액을 기초로 한 투자의 수익율이 기대수익율에 못미치게 될 때, 가계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 부채보유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보유 실태를 살펴 보면, 1992년 가구당 평균 294만원의 부채를 보유하였는데, 이것은 1991년에 비해 무려 20.8%가 증가한 것으로서 평균저축보유액인 901.1만원의 32.6%에 해당된다. 가계의 부채보유액을 조달처별로 보면, 제도금융은 210.5만원으로 71.6%, 사금융은 80.5만으로 27.4%, 기타가 30만원으로 1.0%를 차지하여 사금융보다 제도금융을 통한 부채보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금융권내에서는 은행대출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은행대출의 규모는 1980년의 22.6만원에서 1992년에는 156.4만원으로 7배가량의 증가를 보였다(국민은행, 1993). 가계의 부채유형은 1980년 사채 중심의 사금융 부채액이 127.3만원으로 전체 부채액의 80.3%에 달했으나, 1985년을 기점으로 부채원이 다양화되면서 제도금융기관 부채액이 사금융기관 부채액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부채의 효율성에 대한 가계의 인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미래의 소득을 위해 현재의 지출을 억제하는 절약 및 절제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현재의 생활 역시 미래만큼 중요하다는 생활의 질 추구로 부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채보유 현황의 변화와 부채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경제적 측면의 부채량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안정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상태이다. 가계의 자산 및 부채관련 행동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관련된 순자산액 계정(capital account)"에 대한 가계의 행동은 정확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보유여부와 부채유형에 따른 부채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절대액수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

하고,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 보며, 부채 유형에 따른 부채액과 가계가 보유하는 총부채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 가계의 사회적·경제적·법적 보호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재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계의 재무계획과 재무교육 방향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가계의 지향하는 바가 생애주기에 걸친 저축과 負의 저축의 균형이라면, 단순히 현 시점에서의 부채를 바람직한 것이라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론상의 합리성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대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며, 또한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의 발생이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보유의 합리성을 이론과 실제상황 모두에서 적용하여 실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가계의 부채보유 행동은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서 특정상황하에서 일정생활 수준의 영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가계의 장기적 재정계획수립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성영애·양세정, 1995)에서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가계의 유용한 자원으로서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심영, 1993). 그러나 부채의 관리상의 오류와 과도한 부채 확장은 부채보유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는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파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산자의 대다수는 차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확대하여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는 파산의 주된 원인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사고로 입증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Hira, 1990 ; 1992).

가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변화와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순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절감시키는 방법, 자산소유 및 부채를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Brake & Boehlje, 1985 ; Marlowe & Godwin, 1988). Bryant(1986)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소비자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였는데,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내의 불균형에 대한 반응으로 주택융자, 주택저당, 자동차채권, 자동차부채, 그리고 기타 부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계가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즉각적인 조정 행동을 하지는 않으며, 조정 행동은 포트폴리오 항목 그 자체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내의 다른 항목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하였다. 가계의 이러한 행동은 포트폴리오내 각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보유여부 또는 바람직한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격 및 기대가격, 기대수익율, 이자율, 가계소득 및 지출, 바람직한 소비수준 뿐 아니라 가족선호를 결정짓는 가족구조, 크기, 그리고 생애주기 등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부채는 총부채액, 부채 출처, 각 출처별 부채액수, 월부채 상환액 등의 방법으로 살펴 볼 수 있다(Hira, 1990). 성영애·양세정(1993)은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가계의 월평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의 13.0%였고, 이중 부채보유 가계만을 대상으로 할 때, 평균 부채부담은 33.99%로 나타나 일반 재무상담가들이 위험수위로 제시하고 있는 20%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였다. 부채부담관련 행위는 가계의 수요보다는 외부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조달시 담보조건 또는 신용평가 조건이 될 수 있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이 가계부채보유 및 부담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llivan & Worden(1986)은 부채를 부채이용 확율과 부채부담의 측면에서 규명하였는데, 특히 부채이용 정도가 소비함수에서 도출된 간접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소비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수, 재정관련 변수, 태도변수 및 시장상황 변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부채이용 확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았고, 주택을 저당잡힌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

채를 이용할 확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주기, 상대소득 및 연간가계소득, 유동자산, 신용에 대한 태도도 가계의 부채이용 확율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Kinsey(1981)와 Malowe & Godwin(1988)는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장일의 지속년수와 교육수준으로 구성된 인적 자본, 직업 지위, 교육수준, 신용 사용가능성을 고려한 지역 변수를 들었으며, 이밖에도 Bloom & Steen(1987 : Hira, 1992)은 남성가장 가계가 여성가장 가계에 비해 약 3배 가량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였다. 한편 부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지불불능자의 대부분은 일반인보다 소득이나 총자산이 낮았으며(Hira, 1992), 특히 금융자산은 부채보유 확율과 부채보유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성영애 · 양세정, 1995).

그밖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표준에 도달하고자, 혹은 생활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Bloom & Steen, 1987 ; Ledesma, 1989 ; Pollin, 1988, 1990 ; 심영, 1993). 즉, 항상소득 가설의 견지에서 볼 때, 부채는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득의 하나이며, 소비자가 단지 미래소득을 현재의 구매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표준의 유지측면에서 가계는 현재의 지출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계지출은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Bryant(1986)가 1년 전과 현재의 경제상태를 비교한 주관적인 경제인식이 자산과 부채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한 것처럼, 가계는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통하여 현재소비를 위한 부채를 더 많이 이용하거나 실제로 가계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심영, 1993). 이러한 주관적 경제전망은 Katona (1974), Randall(1981), 이주선(1984)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관적인 경제인식이 가계의 자산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태도 및 기대변화(Katona, 1974)는 측정가능한 자료로서 전체경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관적인 경제인식이나 전망은 가계의 부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계의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로 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가구원 수,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심리적 복지감을 포함시킨 것은 불만족스러운 심리상태가 현재의 지출 욕구 충족이라는 부채의 대안적 재무관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관련 변수로는 자산, 소득, 지출, 개인의 기대변화를 선정하였는데, 이때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지출은 가계의 연간 가계지출로, 그리고 개인의 기대변화는 주관적 경제인식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보다 자세한 재정상태의 파악에 주안을 두고자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부채보유에는 부채가 있고 없음의 여부, 부채유형별 부채액, 그리고 가계의 총부채액을 포함시켰다.

Ⅲ.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가계의 부채보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부채보유 = f(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재정관련 변수)

이때, 종속 변수인 부채보유에는 부채보유 여부, 부채유형별 부채액, 그리고 총부채액이 포함되었으며,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에는 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가구원 수, 주택소유 여부, 심리적 복지감, 그리고 재정관련 변수로는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가계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주관적 경제인식이 포함되었다.

2. 연구방법

1) 표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1993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종속 변수		
부채보유 여부		1=유 0=무
부채 유형	금융기관 부채	1=유 0=무
	사채	1=유 0=무
총부채액		금융기관 부채액+사채액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지역		1=도시(광역시) 0=기타
가구주 성별		1=남자 0=여자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1=해당 0=비해당
	고졸	1=해당 0=비해당
	전문대졸 이상	1=해당 0=비해당
가구주 직업	봉급생활자	1=해당 0=비해당
	자영업자	1=해당 0=비해당
	농림수산업자	1=해당 0=비해당
	비정규직·미취업자	1=해당 0=비해당
가구원 수		
주택소유 여부		1=자가 0=기타(전세, 월세)
심리적 복지감		건강, 가족관계, 여가에 대한 복지감(3-15점)[a]
재정관련 변수		
근로소득		급여+상여금+자영소득+부업 소득 (만원/년)
비근로소득		자산 소득+이전 소득+기타 소득 (만원/년)
총가계소득		근로소득+비근로소득 (만원/년)
가계지출		연간 가계 지출 (만원/년)
예금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기타 (만원)
주식		주식의 총보유액 (만원)
채권		국공채+회사채+기타 (만원)
보험		보험불입 총액 (만원)
계		계불입 총액 (만원)
금융자산		예금+주식+채권+보험+계 (만원)
실물자산		현재 주택시세 (만원)
총자산		금융자산+실물자산 (만원)
주관적 경제인식		1년전과 현재의 경제생활 비교, 현재 경제 생활의 만족도, 1년후의 경제생활 전망(3-15점)[b]

a : 3. 매우 불만족스럽다 9. 보통이다 15. 매우 만족스럽다.

b : 3. 매우 부정적이다 9. 보통이다 15. 매우 긍정적이다.

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이다. KHPS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서, 다단계 층화 확률표본(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일반가구 4,547 가구로 구성된 자료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4,009[1]가계이고, 설문지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가계의 재정상태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변량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는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Logit 분석을 수행하였고, 부채보유 가계에 대해 부채 유형별 부채액은 OLS 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총부채액의 분석에는 Tobit 분석을 적용하였다.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 가계의 34.9%를 차지하는 1,400가계였다. 거주 지역[2]은 도시와 기타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교육수준 역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밖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Ⅳ. 분 석 결 과

1.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가계의 재정상태 분포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구성된 연간 총가계소득은 약 1,73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 도시가계연보의 약 1,773만원에 비교하여 다소 낮지만, 표본의 분포가 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되어 표집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총가계소득의 경우 하위 25% 집단은 평균 960만원인데 반해, 상위 25%집단은 2,200만원으로 약 1,240만원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가계소득을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 25%집단과 상위 25%집단의 차가 약 2배가 넘는 반면, 비근로소득의 경우 약 7배 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비근로소득의 집단간 차이가 근로소득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간 총가계지출은 약 562만원이었으며, 하위 25%집단은 336만원, 상위 25%집단은 720만원으로 나타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2배정도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한편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가계중 가장 많은 보유종목은 예금이었으며, 가장 적게 보유하는 종목은 채권이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비교해 볼 때, 금융자산 평균액은 869만원 정도였으나 실물자산은 5,198만원 이었으며,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가계의 하위 25%집단은 200만원정도를 보유하였으나 상위25% 집단은 1,028만원으로 약 5배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가계의 하위 25%집단은 평균 1,500만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보유한 반면, 상위 25%집단은 그보다 약 4배정도가 많은 6,200만원 정도의 실물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물자산의 분포는 총자산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그것은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중 대부분의 가계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부채액, 사채액 및 총부채액은 분포상의 유사성을 보였으며, 평균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1) 목표표본은 4,500가구였고, 이 목표표본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추출한 표본의 수는 예상응답률(55%)을 고려하여 결정한 8,236가구였다. 대도시 지역의 응답률과 기타도시 지역의 응답률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6대도시 지역은 각 통/리당 8가구를 추출하였고, 기타도시 지역은 각 통/리당 7가구를 추출하였다.

2) 표본수집의 대상이 된 행정구역은 서울(26.5), 부산(8.4), 대구(5.2), 인천(4.7), 광주(2.6), 대전(2.5), 경기(15.3), 강원(3.4), 충북(3.0), 충남(4.0), 전북(4.3), 전남(5.1), 경북(6.4), 경남(8.5)이며 ( )안의 수치는 모집단의 비율(%)이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형변수		전체집단(4,009) N	%	부채집단(1,400) N	%	부채없는집단(2,609) N	%
지역	도시	2,118	47.2	643	45.9	1,475	56.5
	기타	1,891	52.8	757	54.1	1,134	43.5
가구주 성별	남자	3,646	90.9	1,316	94.0	2,330	89.3
	여자	363	9.1	84	6.0	279	10.7
가구주	중졸이하	1,466	36.6	475	33.9	991	38.0
	교육수준 고졸	1,787	44.6	604	43.1	1,183	45.3
	전문대졸 이상	756	18.9	321	22.9	435	16.7
가구주 직업	봉급생활자	1,764	44.0	609	43.5	1,155	44.3
	자영업	1,032	25.7	369	26.4	663	25.4
	농림수산업	424	10.6	234	16.7	190	7.3
	비정규직·미취업	789	19.7	188	13.4	601	23.0
주택소유 여부	자가	2,201	54.9	919	65.6	1,282	49.1
	임대(전세,월세,기타)	1,808	45.1	481	34.4	1,327	50.9
연속변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가구주 연령(세)		43.73	12.59	43.27	11.56	43.98	13.10
가구원 수(명)		3.81	1.31	3.97	1.24	3.72	1.35
심리적 복지감(3-15점)		9.78	2.04	9.74	1.99	9.80	2.06
주관적 경제인식(3-15점)		8.26	1.69	8.02	1.73	8.39	1.66

았다. 총자산액 5,144만원과 총부채액 1,221만원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가계는 적어도 부채상환 능력인 지불능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연구모델의 적합성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에 있어서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및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 여부가 부채보유 여부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의 학력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일 때, 부채보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비정규직과 미취업자에 비해 농림수산업에 종사할 때 부채를 보유할 확율이 낮아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무주택의 경우가 부채를 가질 확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재정관련 변수에 있어서는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금융자산은 부채보유 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근로소득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계 및 무주택 가계의 경우 부채부담이 더욱 크다는 Kennickell & Shack-Marquez(1989)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학력자, 비정규직·미취업자, 무주택자,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 확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금융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빚의 의미로 남아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표 3〉 가계 재정상태 분포

(단위 : 만원)

변 수	N	25th%	50th%	75th%	Mean	S.D.
근로소득	3,754	925	1368	1960	1,564.46	1,070.36
비근로소득	1,472	103	320	700	628.35	1,043.03
총가계소득	3,908	960	1,465.5	2,200	1,736.96	1,341.28
총가계지출	3,957	336	504	720	562.29	337.41
예금액	2,483	100	300	700	617.54	1,174.93
주식보유액	425	70	200	500	456.84	836.31
채권보유액	69	14	30	108	170.20	396.46
보험불입액	1,725	72	195	440	406.11	847.72
계불입액	473	104	250	480	392.15	557.60
총금융자산액	3,020	200	500	1,028	869.29	1,402.43
실물자산액	3,207	1,500	3,000	6,200	5,198.39	6,754.72
총자산액	3,751	1,300	3,000	6,240	5,144.36	6,835.16
금융기관 부채액	1,151	300	660	1,300	1,083.82	1,401.78
사채액	421	300	500	1,000	1,004.75	1,723.83
총부채액	1,368	331	700	1,500	1,221.11	1,829.22

3. 부채유형별 가계부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채 유형은 금융기관 부채와 사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채유형에 따른 가계부채액을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금융기관 부채에 대해서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사채에 대해서는 가구주 직업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비정규직과 미취업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사채액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아직까지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부채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관련 변수 중에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금융기관 부채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사채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과 비근로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물자산은 금융기관 부채액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지만, 사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주택이 금융기관 부채의 담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채액의 경우에는 비근로소득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는데 비근로소득은 자산소득과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된 소득으로서, 정규적인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불안이 더 크며 금융기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적 소속이 없기 때문에, 비근로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채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가계의 총부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부채 보유여부, 금융기관 부채액 및 사채액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적 관계를 보인데 반해, 전체 가계의 총부채액에서는 유의한 부적

〈표 4〉 가계의 부채 유무에 대한 Logit 분석 결과

독 립 변 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지역(도시)	0.236	0.154
가구주 성별(남자)	-0.119	0.358
가구주 연령	0.028 **	0.009
가구주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0.343	0.211
전문대졸 이상	-0.889 ***	0.250
가구주 직업(비정규직 · 미취업)		
봉급생활자	-0.219	0.277
자영업	-0.143	0.285
농림수산업	-1.315 ***	0.388
가구원 수	0.053	0.072
주택소유 여부(자가)	-0.954 ***	0.188
심리적 복지감	0.043	0.038
재정관련 변수		
실물자산	-3.36E-6	0.00001
금융자산	0.0003 ***	0.00007
근로소득	-0.0002 *	0.00008
비근로소득	-0.0001	0.00006
가계지출	0.0003	0.0003
주관적 경제인식	0.077	0.046
상수	-0.738	0.923
-2 Log Likelihood χ^2	110.051 ***	

* $p<0.05$ ** $p<0.01$ *** $p<0.001$

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부채보유 집단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부채액이 증가하지만, 일반적인 가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부채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의 초기단계에 가재도구 및 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의 부채가 연령증가에 따라 상환되는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의 집단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정규직과 미취업자에 비해 농림수산업자의 가계 총부채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소유 여부는 부채 총액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무주택 가계보다 총부채액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정관련 변수 중에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실물자산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은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과 총부채액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Sullivan & Worden(1986), Hira(199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가구주 연령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부채액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전체 가계를 대상

〈표 5〉 부채 유형에 따른 가계부채액의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금융기관 부채액		사채액	
	b	β	b	β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지역(도시)	-132.233	-0.038	37.123	0.022
가구주 성별(남자)	788.895	0.099	460.114	0.143
가구주 연령	4.910	0.028	15.331	0.168
가구주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274.818	0.078	303.688	0.183
전문대졸 이상	635.338	0.169	1.039	0.001
가구주 직업(비정규직 · 미취업자)				
봉급생활자	292.969	0.082	488.868	0.296
자영업	391.976	0.096	663.684	0.378 *
농림수산업	389.015	0.066	730.400	0.208
가구원 수	18.237	0.011	-175.861	-0.202
주택소유 여부(자가)	194.472	0.050	-55.797	-0.032
심리적 복지감	-28.388	-0.031	-18.808	-0.044
재정관련 변수				
실물자산	0.053	0.237 ***	0.003	0.032
금융자산	0.275	0.136 *	0.246	0.230 *
근로소득	0.196	0.120	0.005	0.007
비근로소득	0.103	0.073	0.318	0.420 ***
가계지출	-0.393	-0.070	0.321	0.122
주관적 경제인식	-29.683	-0.029	-66.542	-0.147
상수	-905.604	0.000	-64.436	0.000
R^2	0.154		0.427	

* $p<0.05$ ** $p<0.01$ *** $p<0.001$

으로 하였을 때에는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즉, 현금의 전환 가능액이 증가함에 따라 총부채액은 감소한다는 자산의 유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액이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가계소득이 자산과 부채보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가 정적이었다는 Bryant(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계의 부채보유 및 그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는 가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며, 나아가 재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계의 재무계획과 재무교육 방향을 세우는데 일말의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부채보유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인 4,009가

〈표 6〉 가계의 총부채액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총부채액	
	Estimate	Standard Error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지역(도시)	302.580	209.255
가구주 성별(남자)	-647.989	447.244
가구주 연령	-32.123 **	11.988
가구주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646.238 *	282.190
전문대졸 이상	-1393.757 ***	335.549
가구주 직업(비정규직 · 미취업자)		
봉급생활자	-416.285	367.667
자영업	-482.438	376.627
농림수산업	-1605.123 **	498.924
가구원 수	-44.136	96.355
주택소유 여부(자가)	-834.015 **	254.524
심리적 복지감	-64.012	50.650
재정관련 변수		
실물자산	0.044 **	0.016
금융자산	-0.325 ***	0.085
근로소득	0.283 **	0.102
비근로소득	0.203 *	0.079
가계지출	-0.268	0.353
주관적 경제인식	-105.139	60.996
상수	6055.874 ***	1375.13
Log Likelihood	-3293.794	

* $p<0.05$ ** $p<0.01$ *** $p<0.001$

계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1,400가계로서 34.9%를 차지하였다. 부채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중에서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 여부였고, 재정관련 변수 중에서는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학력자, 비정규직 및 미취업자, 무주택자,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유형별 가계의 부채액을 살펴 본 결과,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가 금융기관 부채액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채액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직업 중 자영업이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련 변수 중에서는 실물자산이 금융기관 부채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사채액에 대해서는 비근로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도금융을 통한 가계자금의 조달비중이 사금융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의 부채는 그 담보가 허락되는 일부 계층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뚜렷한 직업 없이 비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금융을 통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액의 경우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중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주택소유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재정관련 변수 중에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가계가 부채를 더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계의 부채보유 동기가 절대적 필요와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보유가 자산증대 수단이나 또는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위한 생활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일부 경제학자 및 가정학자들이 초과지출이나 부채를 장려하는 부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데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를 통해 금융기관의 혜택이 아직까지 저소득층,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정규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및 미취업자에게는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소외계층이 금융기관 이외의 부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입안과 실행, 예를 들면 정부의 장기적인 융자혜택과 담보체계의 개선, 상환조건의 다양화 등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셋째, 각 지역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가계재무관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어가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 차별화된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안, 그리고 부채 지불능력에 따른 부채한도액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계몽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객관적·사회경제적 변인에 치중하였으며, 부채보유에 관한 개인의 직접적인 선호나 태도가 포함하지 못하였다. 즉, 부채에 관한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변수가 부채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 여부, 부채유형별 부채액, 총부채액 등으로 종속변수를 국한하였으나 부채를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에 기초한 재정율변수 등을 고려한 연구모델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가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집단의 구체적 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 지역적 특성, 특정 연령집단, 직업 집단에 따라 연구대상을 축소하거나 또는 및 심층적 조사을 통하여 재정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민가계경제연구소(1993). 가계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2) 국민은행(1992). 가계금융실태조사
3) 김순미(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pp.89-100
4)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p. 207-219.
5)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pp.29-50
6) Bryant, W.K.(1986), Assets and debts in cosumer portfolio, JCA, 20(1), pp.19-35
7) Chang, Yu-Chun R. & Hanna, S.(1992), Consumer Credit Search Behaviour, JCSHE, 16, pp.207-227

8) Hira, T.K.(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CSHE, 11, pp.183-194

9) Hira, T.K.(1990), Cha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CSHE, 14, pp.165-175

10) Hira, T.K.(1992), Causes and effects of consumer bankruptcies : a cross cultural comparison, JCSHE, 16, pp.229-243

11) Katona(1974),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JCR, 1, pp.1-8

12) Marlow, J. &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ERJ, 17(1), pp.95-109

13) Randall, M.R.(1981), Inflation, income, and eroision of household wealth, Business Economics, 56(4), pp.20-23